

# 이화여고 동창회 2013 년 모임 기념 오페라 아리아 모음

한(이)혜원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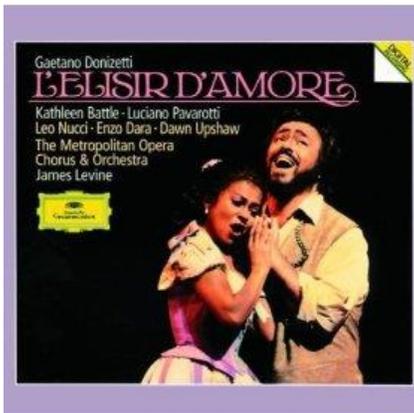
여기에 실은 음악들은 제가 무척 좋아하는 오페라 아리아들을 여러 LP 에서 가장 잘 부른다고 생각되는 가수를 찾아 CD 에다 하나씩 구입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가수들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이 CD 를 들으실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까해서 간단한 내용을 부가했습니다.



**1. Lucia di Lammermoor (Donizetti): “Per te d’immenso giubileo (이 축하를 당신에게)”** 도니제티의 최고 걸작품 “라멜몰의 루치아” 에서 나오는 축하 합창입니다. 찬송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이 바로 이곡에서 따온것이지요. 여주인공 Lucia 는 오빠와 둘이 외로이 살고 있는데 자기집안과 천추원수지간의 집 아들 Edgardo 와 사랑하게 됩니다. 화가 난 오빠는 Edgardo 가 루치아를 배반한 것처럼 조작을 해서 그녀를 실망시킨후 자기를 정치적으로 도울 다른 남자와 억지로 혼사를 시킵니다. 절망에 빠져 미쳐버린 루치아는 신혼야에 신랑을 죽입니다. 추측할수 없던 이축혼합창을 하고 난후이지요.



**2. Norma (Bellini): “ Mira, O Norma (노르마여 당신 무릎앞의 아이들을 좀 보세요)”** 벨리니의 명작 오페라 “Norma” 에서 나오는 여성이중창 입니다. 신정국가(Gaul) 의 high priestess 인 노르마는 점령국 로마의 지방총독 Pollione 와 사랑하여 몰래 아이 둘까지 낳습니다. 그사이 폴리오네는 마음이 변해 이제는 젊은 여승 Adalgisa 를 사랑합니다. 배반당한 노르마는 차라리 애들을 죽이려고 칼을 든 순간 애들이 깨어납니다. 그들을 끼어안고 울며 아달지자를 불러서 자기는 죽을 터이니 폴리오네가 로마로 갈때 애들을 같이 데려다 키워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미 폴리오네의 불성실을 알게 된 아달지자는 자기는 노르마곁에 늘 있겠노라 하면서 애들을 봐서라도 마음을 바꾸라는 간원을 하면서 새로 찾은 우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이중창입니다. 이 duet 은 오페라에서 나오는 이중창중에서 손꼽히는 Duet 입니다. Maria Callas 와 Christa Ludwig(메조)의 이중창입니다.



**3. Elixir of Love (Donizetti) “Quanto a bella, quanto e cara!” (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녀, 볼수록 더욱 좋아지는 ...그녀는 늘 책임고 공부하고 지식이 들어가건만 나는 그저 촌뜨기 무식쟁이, 재주라곤 그녀를 사모하며 한숨쉬는 것 뿐...)”**

19 세기 어느 이태리의 작은 마을에서는 Adina 는 땅도 많이 소유한 부자이면서 똑똑하고 예쁜 처녀입니다. 테너 Nemorino 는 순진하고 가난한 총각입니다. 그는 아디나를 몹시 짝사랑 하고 있습니다. 첫막이 오르면 아디나는 예쁜옷에 큰 모자를 쓰고 나무 밑에서 열심히 책을 읽고 있고 주위에는그 농장에서 일하는 남녀 일꾼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명쾌한

합창을 합니다. 이때 아디나를 연망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던 네모리노가 가벼운 전주를 따라 위에 쓰인 테너의 아리아를 부릅니다. 부르는 내용은 가엽지만 곡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Pavarotti 는 이노래를 잘 부르거니와 이 네모리노역에 참 맞습니다.



#### 4. La Favorita (Donizetti): “Vien, Leonora, a piedi tuoi”

(사랑하는 레오노라 어서 와주오....). 강력한 스페인의 왕 Alfonso 는 자기왕비를 폐위시키고 정부 Leonora 를 왕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왕비는 그나라 카톨릭교에 가장 영향력있는 수도원장 Baldassare 의 딸입니다. 이 사정을 아는 레오노라는 고민속에서 자주 가까이 있는 수도원에가서 외로이 기도합니다. 그 수도원에서 도를 닦고 있던 젊은 수도승 Fernando 가 아름다운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녀와 사랑에 빠집니다. Fernando 는 사실 발다사레가 자기 후계자로 점찍어 놓았었으므로 만류했으나 웨르난도는 탈승하고 곧 왕 알폰소의 군사로 전쟁터에 나가 크게 공훈을 세워 영웅이 됩니다. 이 장면이 나올때는 승전용사 웨르난도의 공훈을 치하하려고 왕이 궁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는 레오노라를 사랑하는 참으로 마음에 닿는 다사로운 아리아 “**Vien,**

**Leonora, a’ piedi tuoi** (사랑하는 레오노라 어서 와주오, 그대의 발밑에 내왕관과 왕위를 놓으리다. 그대의 사랑만 있으면 나에게는 후회가 없으리..)” 라고 노래합니다. 복잡한 사건들을 거쳐 결국은 Leonora 와 Fernando 와의 관계가 밝혀지고 분노한 Fernando 는 그녀를 저주하고 수도원으로 되돌아가고, 그녀는 왕을 떠나 방황생활을 하다 거의 사경이 되어 수도원으로 찾아와 용서를 빌고 그의 품에서 숨을 거웁니다. 왕년에 유명했던 Ettore Bastianini 의 아름다운 바리톤 음성입니다. 이 바리톤은 자주 Maria Callas 와 Franco corelli 와 한팀이 되어 나오곤 했지요.



5. La Traviata (Verdi) “Di Provenza il mar” (고향 프로방스의 바다와 땅을 어찌 잊었는가..거기서 행복했던 너, 늙은 아버의 고통을 모르느냐..집안은 쓸쓸하고....이제 신의 힘으로 너를 다시 찾았구나’ 오페라 춘희에서 고급창녀와 놀아난 아들을 찾아가 안타까이 설득시키려는 아버지의 노래입니다.

메트로폴리탄에서 날렸던 바리톤 Leonard Warren 의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 6. Martha (Flotow) “M’appari” (그녀는 나에게 나타났어)

Martha 는 여왕을 모시는 귀부인(lady in waiting)으로 궁정생활의 지루함을 푼다고 어느 날 시녀와 함께 Martha 라는 가명으로 장터에 나갔다가 더 장난삼아 일손을 구하러 나온 두 젊은 농부의 하녀들로 1 년계약까지하고 그들의 농가로 갔다가 그 다음날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짧은 시간에도 마르타는 형제중 동생 (Lionel, 테너) 과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가 도망치고 난 후 상심한 동생 Lionel 은 Martha 를 그리워 안타까이 노래합니다.

“그녀는 나에게 나타났어. 사랑에 찬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같은 아름다움 나는

연정과 그리움에 타서 내 마음에 새겨져 ...아 마르타, 마르타, 당신은 사라졌어, 내 마음도 사라졌어. 나는 슬픔으로 이제는 죽을꺼야”. 후에 Lionel 은 사실은 귀족인것으로 알게되어 이 둘은 행복하게 지내게 되지요. 여기의 테너는 카루소와 동시대에 나서 아름다운 테너음성으로 유명했던 Benjamino Gigli 입니다. 그당시에 부르던 발성 스타일이 옛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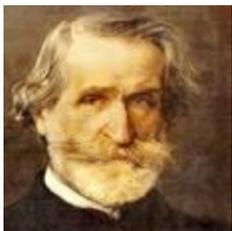


Tenor Luciano Pavarotti and soprano Daniela Mazzucato in Donizetti's "The Elixir of Love"

**7. Elixir of Love (Donizetti): “Una furtiva lagrima negl’occhi suoi spunto (그녀의 눈에 눈물이 살짝 비쳤었지”**  
위에 나온 오페라 ‘사랑의 묘약’의 계속입니다. Adina 는 그 마을에서 땅도 많이 소유한 부자로 아주 예쁜 처녀입니다. Nemorino 는 가난한 총각농부인데 아디나를 몹시 짝사랑 하고 있습니다. Adina 는 하루는 일하는 소작인들을 데리고 자기가 읽고 있던 ‘Tristan and Isolde’애기를 들려줍니다. 기사 Tristan 이 ‘사랑의 묘약’을 먹었더니 쌀쌀하던 공주 Isolde 가 금방 사랑에 빠지더라는 전설이지요. Adina 는 Nemorino 를 좋아하는 하지만 아무일도 안하고 자기에 대한 사랑에만 타있는 그가 딱해서 그더러 자기삼촌이 아프다는데

거기 병문안도 좀 가라고 타이르면서 그때 마침 온 멧쟁이 군인과 결혼하는 척합니다. 급해진 Nemorino 는 마침 그 동네로 찾아온 돌팔이 약장사를 만나 Tristan 의 묘약을 묻습니다. 무식한 약장사가 그 전설을 알리가 없지만 약삭빠른 그는얼른 포도주를 병에 넣고 돈을 많이 받고 바로 그 묘약이라고 합니다. Nemorino 는 이것을 마시고 나니 술이 거나해서 약장사가 말한대로 내일이면 그녀가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고 호통을 칩니다. 나중에는 돈이 모자라 군대까지입대하여 받은 돈으로 술을 더마십니다. 이러한 사이에 그의 부자 삼촌이 병사하여 네모리노에게 큰 재산이 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동네처녀들이 이때까지 쳐다보지도 않던 네모리노를 둘러싸고 야단입니다. 네모리노는 아무것도 모르는채 이일이 묘약의 효과인줄 알고 얼떨하여 Adina 를 본척 않고 아우성치는 처녀들에게 둘러싸여 신나서 끌려나 갑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멀리 서있는 Adina 의 눈에 눈물이 글성거리는모습을 봅니다. 밤늦게사 술과 흥분에서 깨어난 네모리노가 그녀의 생각에 잠겨 무대로 나옵니다. 곧이어 아름다운 전주를 따라 유명한 아리아 ‘남몰래 흐르는 눈물’ 이 시작됩니다. **“Una furtiva lagrima negl’occhi suoi spunto (그녀의 눈에 눈물이 살짝 비쳤었지, 나를 에워싸고 있던 여자들을 부러워 하는 듯했어. 아! 그녀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래 정말 그녀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그녀의 심장고동소리를 한 순간만이라도 느낄수 있었으면 그러면 나는 사랑으로 죽어도 한이 없겠어...)”** 의 자독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아리아는 역시 Pavarotti 가 부르는 것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8. Un Ballo in Maschera (Verdi): “Eri tu che macchiavi quell’ anima(그 영혼을 더럽힌 너, 내 기쁨이며 내 믿었던 그녀를 망치고... 친구의 신의를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너 배덕자...)”.....“O dolcezze perdute”(오, 잃어버린 사랑... 그녀가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내 품에 안겼던 추억...)**

Boston 주지사인 Riccardo는 자기의 충실한 신하 Renato(바리톤)의 부인 Amelia와

사랑합니다. 그녀는 고민끝에 무당을 찾아가서 사랑을 잇는 방법을 묻습니다. 무녀는 야밤에 도시 맨끝에 서 있는 교수대있는 곳으로 가서 그 밑에서 자라고 있는 약초를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녀는 무서움을 참고 그곳에 갑니다. 그러나 무당이 하는 얘기를 열들은 주지사도 거기를 찾아가 결국 둘은 사랑의 황홀감에 잠시나마 빠집니다. 한편 남편 레나토는 주지사를 노리는 자객 들이 바로 거기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지사의 신변을 염려해 그곳으로 갑니다. 주지사를 빨리 피신시키고 주지사의 부탁으로 베일로 얼굴을 가린 주지사의 애인을 모시고 가던 레나토가 그여인이 자기 아내라고 알게되니 이제는 너는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변명하던 그녀가 죽기전에 어린 아들이나 한번 보게 해달라고 눈물어린 간청을 합니다. 등을 돌린 채 듣고 있던 남편 레나토도가 좀 마음이 가라앉아 아내를 보지 않은채 손으로 문 쪽을 가리키며 **“Alzati!, la tuo figlio (일어나, 저기 네 아들이 있다)”**의 서창으로 시작하여 레나토는 아멜리아에게 **“컴컴한 데서 말도 하지 말고 나와 나의 수치를 숨겨라”**하다가 아내 아멜리아가 나가자 **“내 아내를 칠것이 아니고 그놈의 피를 봐야 해...”**하면서 서재 한 벽에 걸린 주지사의 초상화를 노려보며 씩씩한 반주에 따라 **“Eri tu che macchiavi quell”** (그렇다. 너의 피, 내 눈물의 복수는 너 배반자의 심장에서...) 라고 합니다. 이어 플루트와 하프의 슬픈 반주에 따라서 **“Odolcezze perdute (오, 잃어버린 사랑... 그녀가,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내 품에 안겼던 추억...이젠 다 끝났어. 증오와 죽음만이 그녀를 잃어버린 내 마음에)...”**로 흐느끼면서 레나토는 아내가 썼던 베일을 움켜쥐고 거기에 얼굴을 파묻습니다. 바리톤 Tito Gobbi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는 Maria Callas와 자주 공연하던 (Rigoletto, Tosca등) 역사적인 바리톤입니다. Meaty Baritone 목소리라는 평도 있지요.



### 9. Rusalka (Dvorak) “Song of Moon” (하늘높이 떠있는 달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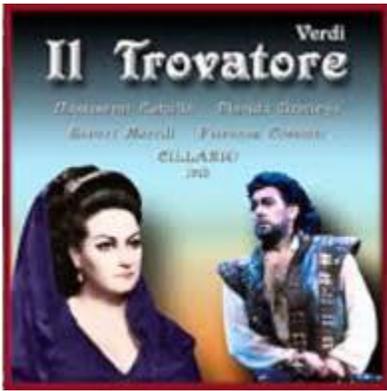
이 오페라의 여주인공은 물의 요정(nymph)인 Rusalka입니다. 숲속 깊이 물속에 살면서 가끔 찾아오는 잘 생긴 왕자를 그리워하여 하늘에 밝게 뜬 달을 쳐다보며 자기 애인 왕자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아름다운 아리아입니다. 결국 요정의 왕인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술의 힘으로 억지로 사람이 되지만 그대신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녀가 말을 못하니 답답했던 왕자는 결국 이웃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게 되어 Rusalka 는 버림받고 다시 요정으로 변신하지만 주위의 웃음꺼리로 외롭게 됩니다. 그사이 그래도 사랑했던 Rusalka를 잊지 못한 왕자는 다시 그녀를 찾아 호수로 옵니다. 그녀를 안타깝게 부르는 왕자를 Rusalka가 호수에서 나와 그를 얼싸안고 물속으로 영원히 들어가고 맙니다. velvet같은 목소리 라고 불리던 소프라노 Zinka Milanov가 부릅니다.



### 10. La Forza del Destino (Verdi):“La Vergine degli angeli (거룩한 성모의 망토로 감싸 주시기를...)”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 에서 나오는 소프라노의 독창과 합창입니다. 스페인의 귀족딸 Leonora 는 Inca 공주를 어머니로 한 혼혈아 Don Alvaro 를 사랑하여 둘이 elope 하다가 들킵니다. 화난 아버지가 Alvaro 에게 결투를 청하자 그는 행복한다고 총을 땅으로 던지는데 그만 발사가 되면서 아버지는 죽게 됩니다. 레오노라의 오빠는 이 둘을 죽인다고 찾아다니고 연인들은 도주중 서로를 잃게 됩니다. 오빠를 피하여 레오노라는 수도원으로 남장을 하고 찾아와 수도승으로 들어가 세상을 등지려 합니다. 이 음악은

가없는 레오노라가 수도승으로 서약할때 많은 수도승과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언제 들어도 참 아름답습니다. 먼저 들은 Zinka Milanov 와 합창단입니다.



**11. Il Trovatore(Verdi): “Il balen del suo sorriso (그녀 미소의 밝음은..)”**

스페인 아라곤왕국의 귀부인 Leonora는 두 남자, Luna백작과 반대파의 지휘관인 Manrico의 사랑을 받으나 그녀는 만리코를 사랑합니다. 연적이며 정적인 두사람은 사실은 돌아간 부친백작의 두아들로 친형제입니다. 그런데 두째아들은 애기때 집시여인에게 유괴되어 불에 타죽은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집시여인이 서둘르다가 실수로 자신의 애기를 불에 던지고 나서 미칠정도 였지만 할수 없이 백작아들애기를 자기 아들이라고 키우면서 만리코라 이름지었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장성한 이

두형제는 오히려 반대파가 되어 전쟁을 자주 하는데 최근 정쟁에서 만리코가 전사했다고 헛소문이 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레오노라는 수녀가 되려고 수녀원으로 들어가 곧 서약식을 하게 됩니다. 이일을 막기위해 그녀를 몹시 사랑하는 형인 루나백작이 부하들을 데리고 수녀원을 포위합니다. 그녀가 서약식하러 나올때 납치하려고 기다리는 동안 루나 백작 (바리톤) 이 레오노라에 대한 연정을 고백하는 아리아입니다. Met에서 활약 많이 했던 바리톤 Robert Merrill이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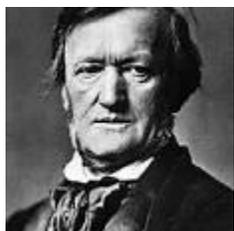


**12. Nabucco (Verdi): “Va, pensiero, sull’ali dorate (생각아 가거라, 금의 날개를 타고)”**

베르디의 출세작 나부코는 바빌론왕 네브가드네살왕의 이태리식 이름입니다. 이스라엘백성이 바빌론의 노예로 중노동을 하면서 고향을 그리는 이른바 ‘히브리 노예의 합창’으로 알려져있는 유명한 합창곡으로 이화에서 많이 합창대회때 불렀지요. 언제 들어도 감격을 불러줍니다.



**13. La Sonnambula (Bellini): “Vi ravviso, O luoghi ameni (오, 아름다운 광경, 다시 너를 보는 구나..내 젊었던 시절)** 벨리니의 오페라 ‘몽유병 여인’에서 어느날 조용한 마을에 나이든 귀족이 들립니다. 몇십년만에 고향땅에 돌아와 저 멀리 높은 산턱에 서있는 자기 자랐던 Castle 을 쳐다보며 옛날 생각에 잠겨 부르는 아름다운 아리아입니다. 이탈리아 bass 로 날리던 Cesare Siepi 의 멋진 음성입니다. 이 가수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돈쵸반니 였지요.



**14. Die Meistersinger (Wagner) “Morgenlich leuchtend in rosigen Shein (빛나고 아름다운 아침이여)** 바그너의 오페라 mastersinger (노래명수)의 경연대회에서 주인공 테너가 부르는 ‘Prize Song’입니다. 여기서 일등을 해서 원하던 애인 Eva 를 얻게 됩니다.

여기 부르는 James King 은 미국인 테너로 주로 유럽에서 Wagnerian tenor(Heldentenor)로 활약했습니다.



**15. Fedora (Giordano): “ Amore ti vieta di non amar ( 당신의 눈은 사랑한다고 응하지만 대답은 아니라고 하네요)”** Fedora 는 러시아의 귀족 (princess)인데 자기 약혼자를 죽인사람이 테너 Loris 백작이라고 의심합니다. 그녀는 좀 더 알아보고져 그를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사귀는 동안 둘은 그만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Loris 가 그녀에게 부르는 애정의 노래입니다. 스페인 테너 Giacomo Aragall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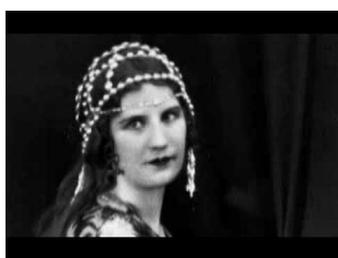
**16. Turandot (Puccini): “Nessun dorma!, nessun dorma! (아무도 잠을 자면 안되지, 당신 공주님도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사랑과 희망으로.. 아무도 제 이름을 알수가 없지요, 그러나 내일 아침에 제가 직접 알리리이다)**

중국의 공주 튜란도트의 3 수수꺼끼를 칼라푸왕자가 다 풀었지만 약속했던 결혼을 하기 꺼려하는 공주에게 이번에는 칼라푸 왕자가 공주에게 자기 이름을 알아맞추면 자기를 죽여도 된다는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온 북경이 미지의 왕자이름을 알아낼 때까지 모두 철야하라는 명령이 내립니다. 그날 밤에 아무도 자기이름을 모를줄을 아는 칼라푸 왕자가 이 아리아를 부르지요. 테너들이 많이 사랑하는 손꼽히는 아리아 입니다. Callas 와 가장 많이 연주하곤 했던 우리도 잘 아는 테너 Giuseppe di Stefano 가 부릅니다.



**17. Cosi Fan Tutte (Mozart) “Un’aura amorosa” (내 애인의 연정의 입김이)**

모차르트의 희가곡 ‘여자는 다 그래’ 에서 테너 웨란도가 자기 애인의 불변의 사랑을 확인하는 노래입니다. 아름답습니다. Lyric tenor 로 손꼽히던 Spanish tenor Alfredo Kraus 입니다.



**18. Lohengrin (Wagner): “Einsam in truben Tagen Hab’ich zu Gott gefleht**

**( 외롭고 슬픈때면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옛독일왕이 Brabant 공국에 찾아와서 그공국의 후계자될 Gottfried 가 소식없이 사라진 이유가 그 누이 Elsa 가 살인했을것이라는 설명을 듣습니다. 왕이 그녀를 불러 변명하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Elsa 가 부르는 “엘사의 꿈” 이라는 유명한 아리아 입니다. 아리아의 뒷부분에 가서는 “어느날 광채나는 갑옷을 입은 순결의 기사를

보았는데 그가 와서 저를 구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노라’ 고 얘기합니다. 왕년에 Wagnerian soprano 로 날리던 Kirsten Flagstad 가 부릅니다



**19. Tannhäuser (Wagner): “Entry of Guests”**

바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저” 의 제 2 막에서 노래경연대회장으로 손님들이 행진해 들어오는 소위 ‘탄호이저 March’ 와 합창. 아주 웅장합니다.



**20. Tannhäuser (Wagner): “ Pilgrim’s Chorus”** 역시 “탄호이저”의 제 3막에서 순례자들이 부르는 합창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신 곡입니다.